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추론 :

- 공격 행동의 의도와 결과 제시 유무를 중심으로 -

Moral Judgment and Moral Reasoning in 3- and 5-Year-Olds :

- Aggressive Behavior -

박진희(Jin Hui Park)¹⁾

이순형(Soon Hyung Yi)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moral judgment and moral reasoning about aggressive behavior by intention, presentation of results of aggressive behavior, and age of child. Forty-four 3-year old and forty-six 5-year-old day-care children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with 20 pictorial tasks. Data analysis was by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aired t-test, and ANOVA(repeated measures). Both age groups judged instrumental and resentment-based types of aggression to be worse than prosocial or rule observance-based aggression. Both age groups judged aggressive behavior to be worse when results of aggression were presented. Five-year-olds judged aggression to be worse on instrumental than on retributive types of intent. Level of reasoning on aggressive behavior was lowest in cases of satisfying resentment Level of reasoning about aggression increased with age.

Key Words : 공격 행동(aggressive behavior), 도덕 판단(moral judgment), 도덕추론(moral reasoning).

I. 서론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공격 행

동을 경험하거나 공격 행동에 가담한다. 더욱이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¹⁾함에 따라 유아는 이른

¹⁾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사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in Hui Park, Sangsan Highschool ,260 Hyoja-dong 1(il)-ga Wansan-gu, Jeonju 137-073, Korea E-mail : jiny97@freechal.com

1)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수는 1990년 48,000명에서 2003년 6월에는 833,269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 통계 연보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도 1990년 414,532명에서 2003년 546,531명으로 증가하였다.

시기부터 이러한 공격 행동에 노출되며, 공격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²⁾. 유아기의 공격 행동은 청년기의 비행과 성인기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고, 지능만큼이나 연령 증가에 따라 안정적(Huesman, Lagerspetz, & Eron, 1984; Olweus, 1979)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아의 공격성은 본능, 동기, 좌절, 분노와 같은 내적 힘이나 문화, 가족,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공격 행동에 참여하거나 폭력을 승인하는 아동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추론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Bennett, 1994; Goldstein & Huff, 1993; Ward, 1995), 공격적 아동의 사회인지, 태도, 사고방식이 공격 행동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인지 발달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인지 발달 관점에서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도덕성의 핵심으로 보며, 도덕 개념이 없는 아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덕 개념을 발달시켜 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동이 인지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도덕적인 이해, 즉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함께 발달해 나가게 된다. 아동의 도덕 판단을 처음으로 연구한 Piaget(1932)는 도덕성을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적인 판단, 즉 어떤 규범을 근거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Locke(1983)는 도덕 판단은 개인이 지지하는 규칙이나 표준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도덕적으로 중립인지를 결정하는

태도로 보고 도덕 추론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Piaget(1932)는 아동의 도덕 판단을 연구하기 위해 5-13세의 스위스 아동들에게 질문 형식의 면접을 하여 마블 게임 규칙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측정하였다. Piaget(1932)는 주인공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가 조합된 다양한 상황의 이야기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실수로 15개의 컵을 깨뜨린 John과, 엄마 몰래 잼을 먹으려고 하다 1개의 컵을 깨뜨린 Henry의 이야기이다. 아동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둘 중에서 어느 아이가 더 나쁜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아동들의 반응을 토대로, Piaget(1932)는 아동의 도덕 판단 능력을 규칙에 대한 태도, 도덕적 책임감, 공정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도덕 판단에 대한 두 가지 단계를 확립하였다. 즉, 타율적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과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의 두 단계로 도덕 판단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Piaget(1932)는 아동의 도덕 판단이 초기에는 행위자의 행동의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타율적 단계에서, 10세 전후로 행동의 의도를 고려하는 자율적 단계로 발달한다고 하여 도덕 판단에 있어서 아동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핵심적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Piaget의 이론은 초기 이론가에 의해 지지되었으나(Boehm & Nass, 1962; Hebble, 1971; Surber, 1977), 방법론적 문제로 인해 이러한 단계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Costanzo, Coie, Grumet, & Farnill, 1973; Hebble, 1971). 이에 따라, 과제의 의도와 결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합하고, 과제를 쉽게 구성함으로써(Armsby, 1971; Costanzo 등, 1973; Hebble, 1971; Turiel, 1966), Piaget(1932)의 견해와 달리 7세 이전의 아동도 의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함을 밝힌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그러

2) 미국 보건연구원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간 전국의 학령전 아동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이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아동보다 공격적 행동이나 반항을 보일 가능성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도의 구분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5세나 6세 아동이 의도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힌 연구들이 제시되었고(Armbly, 1971; Berg-Cross, 1971; Buchanan & Thompson, 1973; Farnill, 1974; Imamoglu, 1975; Keasey, 1977; Rule 등, 1974), 일부 연구에서는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3-4세 유아의 경우에도 의도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김시은·정영숙, 2000; Keasey, 1977; Nelson, 1980; Nelson-Le Call, 1985; Yuill, & Perner, 1984). 다른 연구들은 다소 나이가 들어서야 도덕 판단에서 의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Bernde & Berndt, 1975; Feldman, Klosson, Parsons, Rholes, & Ruble, 1976; Moran & O'Brien, 1983). 따라서 만 5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하게 되는 시기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덕 판단 연구들에서 사용된 과제는 거짓말이나 도둑질과 같은 여러 가지 도덕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에 있어 의도의 고려 수준을 다루었다. 아동은 공격자의 행위가 긍정적 의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부정적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 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함을 제시하였으며(Rule & Ducker, 1973; Rule, Nesdale & Mcara, 1974), Rule과 동료들(1974)은 개인적(적대적) 이유로 공격하는 것이 친사회적 이유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함을 밝혔다. 폭력에 대한 아동의 도덕 추론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폭력 행동의 의도에 따라서 아동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Astor

(1994)는 모든 아동이 유발되지 않은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만, 폭력 행동이 유발된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결과에 따라서는 공격의 결과가 약한 것보다 심각한 것일 때 공격행동의 도덕적 판단은 보다 부정적이었으며(Berg-Cross, 1971), 어린 아동은 나이가 든 아동보다 공격 행동의 결과에 의존함을 밝혔다(Rule & Ducker, 1973). 이와 같이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추론이 공격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은 있으나, 공격 행동의 의도를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지지 않았으며, 의도 구분과 시기와 관련해 검증이 필요한 어린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는 공격 행동을 세분화된 의도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3세 및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과 도덕 추론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은 연령, 공격 행동의 의도 및 결과제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은 연령, 공격 행동의 의도 및 결과제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중류

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와 5세 유아 86명을 연구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중 3세 유아 42명, 5세 유아 44명이었으며, 그 중 남아가 45명, 여아가 4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3세 유아 23명, 5세 유아 19명이며, 서울 지역의 3세 유아 19명, 5세 유아 16명이었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조사일(2003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만 3세 유아 43개월(38개월~48개월)이며, 만 5세 유아 67개월(61개월~71개월)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추론 과제

(1) 도덕 판단 및 추론 과제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추론을 측정하기 위하여 Kracmar와 Valkenburg(1999)가 아동의 폭력 상황 판단에 맞게 개발한 대인 폭력에 대한 도덕 판단(MIIV : Moral Interpreta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척도를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해 아동용 대인 폭력에 대한 도덕 판단 척도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척도는 정당한 폭력과 정당하지 않은 폭력의 내용을 포함한 12가지의 가상적 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이야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 내에서는 보편화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아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아가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이어서 유아가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고,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판단과 추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

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정보가 뒤섞여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현실적 가능성과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공격 행동의 의도와 결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합한 연구 과제를 구성하였다.

연구 과제는 5가지의 세분화된 의도(이타, 규칙 준수, 이기, 화풀이, 보복)를 토대로 개별 의도에 대해 각각 2가지의 상황을 설정하고, 결과(상처가 남)를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의 상황에 조합하여 총 20가지 과제를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과제 상황의 이야기는 성차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이야기의 주인공 및 등장인물의 성별과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일치시켜 구성하였다. 과제는 아동학 대학원 전공자 3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의견이 일치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2인이 이야기 상황이 해당 연령 유아에게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Keasey, 1978; Nelson, 1980)에 의하면 이야기 내용을 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어린 아동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의도 정보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격 상황이 묘사된 3장의 그림카드(3cm×9cm)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과제의 이야기의 첫 번째 그림은 행위의 원인이 되는 의도 정보를 제시하는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공격을 가하는 장면이었으며, 마지막 그림은 공격 행동의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판단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 행동의 결과로 상처가 난 것을 나타낸 그림이었다. 3번째 그림의 장수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도 상처가 없는 그림을 넣어서 동일하게 3장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도덕 판단 및 추론 과제의 구성

공격 행동의 의도		결과 제시 유무	과제 번호
이 타	장난감을 뺏기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유	1
		무	2
	맞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유	3
		무	4
규칙 준수	교실에서 떠들어서 조용히 하게 하려고	유	5
		무	6
	줄을 서지 않아서 줄을 서게 하려고	유	7
		무	8
이 기	친구의 장난감을 뺏으려고	유	9
		무	10
	친구가 타고있는 있는 그네를 뺏으려고	유	11
		무	12
화 풀 이	길 가다가 넘어져서 화가 나서 화풀이로	유	13
		무	14
	엄마에게 혼나서 화가 나서 화풀이로	유	15
		무	16
보 복	친구가 놀려서 놀리지 못하게 하려고	유	17
		무	18
	친구가 때려서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유	19
		무	20

2) 도덕 판단 및 도덕 추론 과제의 분석 기준

(1) 도덕 판단 점수

면접자가 개별 면접을 통해 유아에게 20개의 이야기를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여 들려준 후, 질문을 통해 유아의 응답을 요구하여 도덕 판단 점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를 응답하도록 요청하고, 유아가 잘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4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Kracmar와 Valkenburg(1999)가 사용한 대인 폭력에 대한 도덕 판단(MIIV : Moral Interpreta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척도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대상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과제를 쉽게 구성하고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의 응답은 조사 후에 변환하였는데, 잘한 정도와 잘못된 정도의 4점 척도를 합한 8점 척도에서 중복되는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다’를 한번 빼고 총 7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즉, ‘매우 잘했다는 7점’, ‘잘했다는 6점’, ‘조금 잘했다는 5점’,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다’는 4점, ‘조금 잘못했다’는 3점, ‘잘못했다’는 2점, ‘매우 잘못했다’는 1점으로 하는 7점 척도로 재구성한 후 분석하였다.

(2) 도덕 추론 유형과 도덕 추론 점수

유아에게 각각의 과제 상황에 대해 왜 잘했는지 혹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여, 유아의 응답에 따라 추론 유형을 구분하고 추론 점수를 산출하였다. 응답의 내용에 따른 유아의 도덕 추론 유형과 추론 점수는

〈표 2〉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추론의 유형과 추론 점수 및 응답 사례

신체적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 유형	점수	정 의	응답 사례
벌·권위지향적 추론 (Punishment·Authority)	0	벌·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때리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엄마가 때리지 말랬는데”
상투화된 추론 (Stereotypical)	1	좋고 나쁜 태도에 대한 상투화된 이미지를 추론 없이 사용	“때리면 안되요” “때리는 건 나빠” “때리는 건 나쁜 사람”
욕구충족적 추론 (Hedonism)	2	이기적인 획득 지향	“먼저 뺏어가서 그랬으니까”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타인의 필요지향적 추론 (Need-Oriented)	3	개인의 육체적 안전이나 고통에 대한 언급	“때리면 아프니까” “아프겠다” “때리면 다치니까”
조망수용적 추론 (Perspective taking)	4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 타인도 인간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언급. 행위자의 좋고 나쁜 동기에 대한 언급.	“친구니까” “친구를 도와 주려고 그랬으니까” “친구 공 뺏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Eisenberg(1979)의 친사회적인 도덕추론의 10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Kracmar와 Valkenberg(1999)가 폭력 상황에 맞게 수정한 5가지 도덕 추론 유형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각 추론 유형에 따라 수준 별로 0점에서 5점까지의 추론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 추론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추론 유형에 따른 정의와 추론 점수 및 응답 사례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도덕 추론은 아동학 전공자 2인이 평정하였으며, 86명의 유아의 응답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는 .81로 양호한 편이었다. 두 평정자의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음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여 분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자와,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아동학 전공자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유아를 한 명씩 지정된 장소로 데려와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일치되게 과제 상황을 묘사한 그림카드를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여 과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제시한 후에는 그 상황에 대해한 유아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질문과정을 거쳤다. 유아가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면, 계속 진행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 과제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과제 상황을 이해한 유아에게 질문을 하여 과제 상황의 주인공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질문하고, 응답에 따라 어느 정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나타내는 4점 척도를 제시하여 유아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의 응답에 대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유아의 응답을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쌍체 t검증(paired t-test)이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도덕 추론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도덕 판단과 추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연령, 공격 행동의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도덕 판단과 추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고 의도와 결과 제시 유무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을 위해 쌍체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유아의 연령,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점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판단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의도와 결과제시 유무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점수에서 의도와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격 행동의 의도에 따른 도덕 판단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5가지 의도에 대한 도덕 판단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_{(4,336)} = 6.00, p < .001$), 각각의 의도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으로 쌍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타적 의도와 이기적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에 대한 판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20, df = 86, p < .01$). 3세와 5세 유아는 이기적 동기로 행한 공격 행동이 이타적 동기로 행한 공격 행동보다 더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화풀이를 목적으로 한 공격 행동을 이타적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보다 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고($t = 2.44, df = 86, p < .05$), 이기적 목적을 위한 공격 행동이 규칙 준수를 위한 공격 행동보다 더 잘못했다고 판단하였다($t = 3.80, df = 86, p < .001$).

<표 3> 연령,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점수

의도	결과 제시	연령		평균
		3세(n=42)	5세(n=44)	(N=86)
		M(SD)	M(SD)	M(SD)
전체	유	1.97(.48)	1.98(.61)	1.97(.55)
	무	2.09(.43)	2.09(.43)	2.13(.52)
	평균	2.03(.39)	2.08(.57)	2.05(.49)
이타	유	2.02(.71)	2.14(1.07)	2.08(.91)
	무	2.29(.73)	2.23(1.10)	2.26(.94)
	평균	2.15(.51)	2.18(1.00)	2.17(.80)
규칙 준수	유	2.24(.85)	2.11(1.02)	2.17(.94)
	무	2.30(.69)	2.18(1.00)	2.24(.86)
	평균	2.27(.62)	2.15(.78)	2.21(.70)
이기	유	1.90(.73)	1.65(.67)	1.76(.67)
	무	1.90(.72)	2.03(.80)	1.97(.76)
	평균	1.90(.61)	1.85(.57)	1.87(.59)
화풀이	유	1.80(.54)	2.08(.90)	1.94(.75)
	무	1.85(.69)	2.14(.79)	1.99(.75)
	평균	1.81(.56)	2.08(.75)	1.95(.68)
보복	유	1.96(.67)	1.95(.90)	1.96(.79)
	무	2.06(.81)	2.28(.77)	2.17(.79)
	평균	2.01(.62)	2.12(.72)	2.07(.67)

〈표 4〉 연령,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점수 변량 분석

변 동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 험 자 간	연 령	.53	1	.53	.23
	오 차	193.62	84	2.31	
	의 도	14.08	4	3.52	6.00***
	의도×연령 오 차	4.30 197.10	4 336	1.07 .59	1.83
피 험 자 내	결 과	4.48	1	4.48	8.68**
	결과 제시×연령	.38	1	.38	.73
	오 차	43.35	84	.52	
	의도×결과 제시	1.04	4	.26	.66
	의도×결과 제시×연령	1.85	4	.46	1.18
	오 차	131.43	336	.39	

** $p<.01$ *** $p<.001$

또한, 화풀이를 위한 공격 행동을 규칙 준수를 위한 공격 행동보다 더 잘못했다고 판단하였고($t=2.89$, $df=86$, $p<.01$), 이기적 의도의 공격 행동이 보복을 위한 공격 행동보다 더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t=-2.14$, $df=86$, $p<.05$).

이와 같은 결과는 3세와 5세 유아의 신체적 공격 행동이 이기적 동기나 화풀이와 같은 부정적 의도로 행해진 경우 이타적 동기나 규칙 준수와 같이 긍정적인 의도를 토대로 행해진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함으로써 동일한 신체적 공격 행동에 대해서도 의도를 고려하여 어떤 경우가 더 나쁘지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놀리거나 때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공격 행동을 한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해 보복적 정의가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격 행동의 의도가 부정적일 경우 긍정적인 경우보다 더 나쁘게 평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Rule & Ducker, 1973; Rule 등, 1974)와 일치하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연령인 5세보다 더 어린 연령인 3세 유아의 경우에도 공격 행동의 세분화된 의도에 따라 도덕 판단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보

복으로 공격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이기적 공격 행동보다 덜 나쁘게 판단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폭력 행동이 유발된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Astor, 1994)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공격적인 아동 집단이 아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공격 행동이 유발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전체 의도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평가한 이기적 의도의 공격 행동과 구분하여 덜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공격 행동의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도덕 판단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3세와 5세 유아는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은 공격 행동의 부정적 결과가 제시된 경우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하였다($F_{(1)}=8.68$, $p<.01$). 공격의 결과가 약할 때보다 심각할 때 공격행동의 도덕적 판단은 보다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Berg-Cross, 1971)를 통해 볼 때, 공격 행동의 결과가 제시된 경우 행동을 더 나쁘게 평가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아동이 나이 많은 아동보다 공격 행동의 결과에 의존하여 평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Rule & Ducker, 1973)와는 차이를 보인다. Rule과 Ducker(1973)가 제시한 8세보다 더 어린 연령이 3세와 5세 아동 모두 결과와 의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가 도덕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7세 이전의 미취학 아동이 의도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며(Armyby, 1971; Berg-Cross, 1971; Buchanan & Thompson, 1973; Famill, 1974; Imamoglu, 1975; Keasey, 1977; Rule et al., 1974),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3-4세 아동의 경우에도 의도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결과(김시은·정영숙, 2000; Keasey, 1977; Nelson, 1980; Nelson-Le Call, 1985; Yuill, & Perner, 1984)와 일치한다. 이는 과제를 체계적이고, 유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면, 3세 및 5세의 어린 유아도 의도와 결과를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1)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빈도 추론 유형에 따른 빈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유아의 경우에는 상투화된 추론(63%)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의 필요지향적 추론(15.7%), 조망수용적 추론(8.8%), 욕구충족적 추론(5.6%)의 순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에는 3세 유아에게서 일부 나타났던 별·권위 지향적 추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3세 유아와 동일하게 상투화된 추론(54.4%)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타인의 필요지향적 추론(23.5%), 욕구충족적 추론(12.5%), 조망수용적 추론(9.5%)의 순이었다.

〈표 5〉 연령별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유형

유형	별·권위 지향	상투화	욕구 충족	타인의 필요지향	조망 수용적	계
3세	58 (6.9)	529 (63.0)	47 (5.6)	132 (15.7)	74 (8.8)	840 (100)
5세	0	479 (54.4)	110 (12.5)	207 (23.5)	84 (9.5)	880 (100)

*()안은 백분율임.

2)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유아의 연령,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점수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도덕 추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표 6〉 연령,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의도	결과 제시	연령		평균 (N=86)
		3세(n=42)	5세(n=44)	
		M(SD)	M(SD)	M(SD)
진	유	1.59(.64)	1.86(.52)	1.72(.59)
	무	1.57(.64)	1.87(.54)	1.72(.62)
	평균	1.58(.62)	1.86(.49)	1.72(.57)
이	유	1.54(.95)	1.80(.79)	1.67(.88)
	무	1.60(1.04)	1.90(.84)	1.75(.95)
	평균	1.57(.90)	1.85(.74)	1.71(.83)
규	유	1.64(.89)	2.02(.80)	1.84(.86)
	무	1.69(.94)	2.09(.88)	1.90(.93)
	평균	1.67(.74)	2.06(.77)	1.87(.78)
이	유	1.88(1.08)	1.99(1.03)	1.94(1.05)
	무	2.02(.80)	1.94(.99)	1.98(.90)
	평균	1.94(1.01)	1.98(.91)	1.96(.96)
화	유	1.13(.49)	1.49(.70)	1.31(.63)
	무	.99(.41)	1.48(.71)	1.24(.63)
	평균	1.08(.44)	1.48(.53)	1.28(.52)
보	유	1.69(.94)	2.00(.72)	1.85(.84)
	무	1.57(.93)	1.92(.78)	1.75(.87)
	평균	1.63(.85)	1.96(.65)	1.80(.77)

〈표 7〉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점수 변량 분석

변 동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 험 자 간	연 령	17.76	1	17.76	6.66*
	오 차	223.87	84	2.67	
	의 도	48.92	4	12.23	17.27***
	의도×연령	4.55	4	1.14	.17
	오 차	237.89	336	.71	
피 험 자 내	결 과	0	1	0	.00
	결과×연령	0	1	0	.01
	오 차	33.74	84	.40	
	의도×결과	1.21	4	.30	.46
	의도×결과×연령	.60	4	.15	.45
	오 차	112.46	336	.34	

* $p<.05$ *** $p<.001$

요인으로, 의도와 결과제시 유무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점수에서 의도와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격 행동의 의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5가지 의도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 점수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_{(4,336)}=17.27$, $p<.001$), 각각의 의도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으로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3세 및 5세 유아는 화풀이의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보다 이타적 의도의 공격 행동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였다($t=4.40$, $df=86$, $p<.001$). 또한, 화풀이를 위한 공격 행동보다 규칙 준수를 위한 공격 행동에 대해 더 높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추론하였다($t=6.64$, $df=86$, $p<.001$). 이기적 의도의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과 화풀이를 위한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도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7.00$, $df=86$, $p<.001$), 화풀이를 위한 공격 행동보다 이기적 의도의 공격 행동에 대해 더

높은 단계의 추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풀이를 위한 공격 행동보다 보복을 위한 공격 행동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추론하였다($t=-6.66$, $df=86$,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3 및 5세 유아는 화풀이의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에 대해 다른 공격 행동의 의도보다 낮은 단계의 도덕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풀이의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의 경우에는 유아가 행위자의 긍정적 의도나 부정적 의도를 고려하여 응답할 기회를 감소시켜, 조망 수용적 추론이나 타인의 필요 지향적 유형과 같은 비교적 높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할 감소시키고, 대신 상투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과제의 상황적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연령, 의도 및 결과 제시 유무에 따른 공격 행동의 결과를 제시한 경우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간에는 도덕 추론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과제 상황이 동일한 경우 공격 행동의 결과가 추가된다고 해서 유아가 그 결과를 중심으로 추론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즉, 결과가 제시되든 제시되지 않은 아동은 의도를 중심으로 그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추론

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의 연령의 경우, 3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 도덕 추론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6.66, 84, p<.05$). 즉,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도덕 추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도덕 추론 유형의 빈도에서 3세 유아가 5세 유아에 비해 상투화된 추론이나 벌·권위지향적 추론은 더 사용하는 반면, 타인의 필요지향적 추론이나 조망수용적 추론, 욕구 충족적 추론은 더 적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간단하게 어떤 것이 어느 정도로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는 도덕 판단과 달리 판단의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도덕 추론에 있어서는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으며, 이처럼 어린 연령에서 더 낮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추론에 관련한 연구 결과와(강명옥, 1984; 김종경, 1991; 박미화, 1989, Eisenberg-Berg & Neal, 1979; Kohlberg, 1984)와 동일한 결과이다.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덕 추론을 측정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이 연구의 결과는 3세 유아도 도덕 추론이 가능하며, 나이 많은 연령에 비해 벌·권위지향적 추론이나 상투화된 추론과 같이 낮은 단계의 유형을 많이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이 연령 공격 행동의 의도, 결과 제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이 연령, 공격 행동의 의도, 결과 제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3세 및 5세 유아는 공격 행동의 의도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다. 3세와 5세 유아 모두 이기적 동기나 화풀이로 행한 공격 행동보다 이타적 동기나 규칙 준수를 위한 공격 행동을 덜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이기적 동기로 행한 공격 행동보다 보복을 위한 공격 행동을 덜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는 3세 및 5세 유아가 이타적 동기나 규칙 준수와 같이 긍정적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이기적 동기나 화풀이와 같이 부정적 의도에 근거한 경우를 구분하여 공격 행동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Rule & Ducker, 1973; Rule 등, 1974)에서도 공격 행동의 의도가 부정적일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에 덜 나쁘게 평가함을 밝혔으나, 기존 연구의 대상 연령인 5세보다 더 어린 3세 유아도 이러한 의도 구분이 가능함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놀리거나 때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공격 행동을 한 경우보다 덜 나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아동이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폭력 행동이 유발된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Astor, 1994)의 결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공격적인 아동 집단이 아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공격 행동이 유발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전체 의도 중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된 이기적인 의도의 공격 행동과는 구분하여 덜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은 공격 행동으로 인한 결과 의 제시 유무에 따라 다르다. 3세와 5세 유아는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은 공격 행동의 부정적 결과가 제시된 경우에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판

단하였다. 공격의 결과가 약한 경우보다 심각한 경우일 때 공격행동의 도덕적 판단은 보다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Berg-Cross, 1971)로 미루어 볼 때, 공격 행동의 결과가 제시된 경우에 행동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 어린 아동이 나이든 아동보다 공격 행동의 결과에 의존하여 평가함을 제시한 선행 연구(Rule & Ducker, 1973)와는 차이가 있다. 즉, 3세 유아도 결과와 함께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린 아동이 더 결과에 의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연구는 Rule과 Ducker(1973)가 제시한 8세보다 더 낮은 연령인 3세와 5세 아동이 결과와 의도를 모두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격 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은 공격 행동의 의도에 따라 다르다. 3세와 5세 유아는 화풀이의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에 대해 다른 공격 행동의 의도에 대한 추론보다 낮은 단계의 도덕 추론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화풀이의 의도로 행한 공격 행동의 경우에는 유아가 행위자의 긍정적 의도나 부정적 의도를 고려하여 응답할 기회를 줄여, 조망 수용적 추론이나 타인의 필요 지향적 유형과 같은 비교적 높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할 기회를 감소시키고, 대신 상투적인 응답을 하게 하는 과제 상황적 설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덕 추론의 상황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3 및 5세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추론은 공격 행동의 결과 제시 유무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과제 상황이 동일한 경우 공격 행동의 결과가 추가된다고 해서 유아가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추론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즉, 결과가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거

나 유아는 의도를 중심으로 그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추론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즉,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도덕 추론을 하였다. 이는 추론 유형의 빈도 분석의 결과를 통해 볼 때, 3세 유아가 5세 유아에 비해 상투화된 추론이나 벌·권위지향적 추론은 더 사용하는 반면, 타인의 필요지향적 추론이나 조망수용적 추론, 욕구 충족적 추론은 더 적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잘잘못의 정도만을 제시하는 도덕 판단과 달리 판단의 근거나 이유를 구술해야 하는 도덕 추론은 더 많은 인지적 정보처리 능력을 요구하므로 3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어린 연령에서 더 낮은 단계의 추론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추론에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결과이다(강명욱, 1984; 김종경, 1991; 박미화, 1989; Eisenberg-Berg & Neal, 1979; Kohlberg, 1984).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도덕 추론을 측정된 선행 연구는 없으나, 이 연구의 결과는 3세 유아도 도덕 추론이 가능하며 높은 연령에 비해 벌·권위지향적 추론이나 상투화된 추론과 같이 낮은 단계의 유형을 많이 사용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과 추론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에게 가상적 상황을 그림으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언어를 사용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3세 및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지속적인 발달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발달 경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도덕 판단에서 의도 구분 시기에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3세 유아도 공격 행동의 의도를 구분하여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도덕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도덕 가치에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에 대해 한정하여 도덕 판단과 추론을 살펴봄으로써 공격 행동의 세분화된 의도에 따라 유아의 도덕적 판단을 살펴보았다. 셋째, 도덕 판단이나 도덕 추론의 하나만을 살펴본 선행 연구와는 달리 판단과 추론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도덕 판단과 도덕 추론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3세 연령을 대상으로 도덕 추론을 연구하여, 나이 어린 3세 유아의 도덕 추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추론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여섯째,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한 척도를 수정하여 체계적인 유아용 대인 폭력에 대한 도덕 판단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추론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보육시설이나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옥(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시은·정영숙(2000). 도덕 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 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49-64.
- 김종경(1991). 아동의 감정이입 발달과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화(1989). 아동의 역할수용과 친사회적 도덕추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rmsby, R. E.(1971). A Re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1241-1248.
- Astor, R.(1994).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family and peer violence : The role of provocation and retribution. *Child Development*, 65, 1054-1067.
- Bennett, W.(1994). America at risk : Can we survive without moral values. *USA Today*. 14-16.
- Berg-Cross, L. G.(1971) Intentionality, degree of damage, and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46, 970-974.
- Berndt, T. J., & Berndt, E. G.(1975).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6, 904-912.
- Boehm & Nass, M. L.(1969) .*Social class differences in conscience development*. In : D. Rogers (Ed.), *Reading in child psychology*. Cf : Brooks Cole.
- Buchanan, J. P., & Thompson, S. K.(1973). A quantitative methodology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4, 186-189.
- Costanzo, P. R., Coie, J. D., Grumet, J. F., & Farnill, D.(1973). A re-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intent and consequence on children's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4, 154-161.
- Eisenberg-Berg, N.(1979).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ment : A longitudinal follow-up.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8-137.
- _____, & Neal, C.(1981). Effects of identity of the story character and cost of helping in

- children's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17-23.
- Farnill, D.(1974). The effects of social-judgment set on children's use of in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42, 276-289.
- Feldman, N. S., Klosson, E. C., Parsons, J. E., Rholes, W. S., & Ruble, D. N.(1976). Order of Information Presentation and Children's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47, 556-559.
- Goldstein, A., & Huff, C.(1993). *The Gang intervention handbook*. Champign. IL : Research Press.
- Hebble, P. W.(1971).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judgments of intent. *Child Development*, 43, 187-195.
- Huesman, L. R., Lagerspetz, K. Y., & Eron, L. D. (1984). Intervening variables in the television violence-aggression relation :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46-775.
- Imamoglu, E. O.(1975). Children's awareness and usage of intention cues. *Child development*, 46, 39-45.
- Keasey, C. B.(1977). Children's developing awareness and usage of intentionality and motives. In C. B. Keasey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25). Linch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Vol. 3.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F : Harper & Row.
- Krcmar, M., & Valkenburg, P. M.(1999). A scale to assess children's moral interpretations of justified and unjustified violence and its relationship to television viewing. *Communication Research*, 26, 608-634.
- Locke, D.(1983). Doing what comes morally. The relation between behavior and moral reasoning. *Human development*, 26, 11-25.
- Moran, J. D., & O'Brien, G.(1983). The development of intention based moral judgment in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75-179.
- Nelson, S. A.(1980). Factors influence young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Nelson-Le Gall, S. A.(1985). Motive-outcome matching and outcome foreseeability : Effects on attribution of intentionality and mor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23-337.
- Olweus, D.(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Norton.
- Rule, B. G., Nesdale, A. R., & Mcara, M. J.(1974). Children's Reactions to information about the intentions underlying an aggressive act. *Child Development*, 45, 794-798.
- _____, & Duker, P.(1973). Effects of intentions and consequences on children's evaluations of agg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84-189.
- Surber, C. F.(1977). Developmental processes in social Inference : Averaging of Intentions and consequences in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54-665.
- Ward, J.(1995). Cultivating a morality of care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 A culture based model of violence preven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5, 175-188.
- Turiel, E.(1966). An experimental test of sequentiality of developmental stages in the child's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611-618.
- Yuill, N., Perner, J.(1984). Intentionality and knowledge in children's judgments of actor's responsibility and recipients emotional re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73-81.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9일 채택